

경제신문 스크랩 양식

헤드라인 (요약과 압축)	"애플, 챗 GPT 대항마 만든다"...주가 역대 최고 '터치'
기사링크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307209262i
본문 (본문 내용 복사)	<p>애플이 자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애플 주가는 장중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p> <p>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애플이 자체 AI 거대언어모델(LLM) 프로그램을 내부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p> <p>소식통에 따르면 애플은 자체 프레임워크 '에이잭스(Ajax)'를 기반으로 챗봇 서비스를 만드는 새로운 전략을 구상 중이다. 내부에서는 이를 '애플 GPT'라고 부르는 것으로 전해진다.</p> <p>소식통은 애플의 여러 팀이 협력해 최근 몇달 간 AI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문제 해결 등 작업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애플 GPT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로 소비자에 공개할지 등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해당 보도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p> <p>이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증시에서 애플 주가는 장중 2.3% 올라 사상 최고치인 198.22달러를 기록했다. 오후 상승 폭을 줄이며 애플은 전 거래일보다 0.71% 상승한 195.10달러에 마감했다. 애플은 지난달 30일 세계 최초로 '시가총액 3조달러'라는 새 이정표를 썼으며 그 이후 등락을 반복했다.</p> <p>그동안 AI 열풍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던 애플은 빅테크(대형기술기업)가 잇따라 생성형 AI 개발에 뛰어들자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CNBC는 "애플이 최근 AI 기술의 발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출시될 제품에 해당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p> <p>애플이 본격적으로 출두하면 생성형 AI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생성형 AI 시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선두를</p>

	<p>달리고 있으며 구글과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 기업도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p> <p>MS는 2019년부터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왔다. 올 초 100억달러를 투자하고 자사 검색엔진인 Bing에 챗GPT를 적용했다. MS는 지난 18일엔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플랫폼스와 손잡고 메타의 최신 LLM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한다고 밝혔다.</p> <p>구글은 생성 AI 바드와 구글워क्स페이스의 생성 AI 기능을 공개했다. 또 구글은 지난 3월 오픈AI 연구진 중 일부가 독립해 설립한 앤스로픽에 3억달러를 투자해 지분 10%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존은 생성형 AI 센터 구축에 1억달러를 투입한다고 6월 발표했다.</p>
기사 내용의 수치화, 인사이트	
추가조사할 내용 또는결과	<p>거대 언어 모델(LL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규모 데이터 세트에서 얻은 지식을 기반으로 텍스트와 다양한 콘텐츠를 인식하고 요약, 번역, 예측, 생성할 수 있는 딥 러닝 알고리즘이다.- 자연어 응답을 생성하기 위해 LLM은 다층 신경망을 사용하여 복잡한 데이터를 처리, 분석 및 예측하는 심층 학습 모델을 사용한다.
요약 및 의견 for 경제신문스크랩 스터디용	<p>핵심정보 : 애플이 거대언어모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p> <p>상세 :</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애플은 자체 프레임워크 '에이잭스(Ajax)'를 기반으로 챗봇 서비스를 만드는 새로운 전략을 구상 중이다.2. 이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증시에서 애플 주가는 장중 2.3% 올라 사상 최고치인 198.22달러를 기록했다.
적용할점 (현직자에게 할 질문)	-
연관기사 링크	